

“국민·민생 헌신 ‘일꾼 정부’...청년 일자리 늘려야”

“내란 청산·개혁으로 국민 주권 실현”

●박미경 ‘비상행동’ 공동대표



지난 6개월 동안 내란 주범을 비롯한 친위 내란 세력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활개치며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새 정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가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란 청산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내란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망가질 대로 망가진 민생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불평등한 구조 역시 그대로 다.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개헌과 사회 대개혁은 국민의 목소리 특히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며 다시는 지난해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소상공 위한 대통령 ‘소통령’ 돼달라”

●김현성 ‘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코로나19 시기, 국가가 떠안았어야 할 빛이 소상공인과 가계에 전가됐다. 정부의 금융정책은 달콤하지만 파산의 원인이 되고 재도약을 막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30초마다 한 곳이 폐업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쇄 도산은 지역 경제를 붕괴시키고 사회 안전망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비용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가족돌봄아동 통합지원체계 필요”

●변정근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장



올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주목하지 못했던 돌봄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었지만, 여전히 법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가족돌봄아동에게는 학업, 정서,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도울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가족돌봄아동을 보호받아야 할 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바란다.

“지역 건설업체 위한 정책 마련해주길”

●박경재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



새 정부가 건설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주길 간곡히 바란다. 공사를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 마련, 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규제의 전환, 지역 SOC투자 예산 확대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또한 전남 건설업계를 대표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민의 생활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제2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 건설산업이 지역 균형발전에 앞장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세제 혜택 확대를”

●윤몽현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현재 청년실업률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많은 청년이 취업 기회를 찾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성장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만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이 활발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꼭 필요하다. 또 GGM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직원들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세제 개편을 통해 중견기업까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실현돼 신나는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교학점제 현실 맞게 개정 필요하다”

●김루하(설월여고 1학년)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으나, 학생들과 교사들은 고통받고 있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지 못한 채 이뤄진 고교학점제로 인해 혼란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졸업이 안 돼 수술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학생들도 출석해야 한다고 알려졌다. 게다가 선택과목이 약 100개나 돼 향후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과 선택권을 박탈당한다는 불만소리도 하고 있다. 새 정부는 현실에 맞는 고교 교육과정 개정을 하길 바란다.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나라 됐으면”

●홍효경(주부)



한 마을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 공동체 정신이 결여돼가는 시점에 맞벌이 가정으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많은 부모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문제다. 아동 돌봄 정책은 큰 예산을 투여해 시행하지만 아직까지 크게 와닿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동체 정신을 일깨우는 마을 중심 돌봄 공동체의 정부 지원 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및 마을 돌봄 공동체 체계 완화, 돌봄 공동체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예술이 사회 중심문화로 자리잡길”

●박준현 시립창극단 비상임단원



예술이 전통과 현대, 원로와 청년이 조화를 이루며 우리 사회의 중심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 젊은 예술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예술을 자랑스럽게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 예산을 확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도와 실험은 좌절이 아닌 가능성으로 받아들이어야 한다. 예술인으로서, 도전에 응원받고 창의가 존중받는 사회를 꿈꾼다. 문화가 강한 나라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여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 됐으면”

●정혜원(조선대 4학년)



이번 정권은 노동자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정권으로 거듭나야 한다. 최근 택배 업계 일부는 주 7일 배송제를 선언하며 노동자들에게 갑작스러운 근무 통보와 휴일 배송 불참자에 대한 해고 압박을 했다. 지난 2022년 SPC재단 공장 노동자 사망 이후 재단 회장은 재발 방지 및 안전시스템 강화를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사망 사건은 3번째에 달한다. 참사는 책임져야 할 회장과 대표는 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알바는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우리 모두 노동자다. 소년공 출신의 새 대통령과 함께 모든 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고 연대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소원한다.

“지역 교육·문화 인프라에 힘써주길”

●차현아(주부)



늘봄학교가 생겼지만 3학년이 되면서 1,2학년때와 같은 돌봄은 똑 끊기고 방과후 수업만 남게 됐다. 그마저도 방학때만 갖 곳이 없어서 사실상 돌봄에 위탁해야 하는 실정이다. ‘좋은 학교’로서의 쏠림현상도 심해져 광주는 학생 수도 학교마다 편차가 크다. 더욱이 서울에 비해 예능이나 체험학습, 문화체험 비용은 비싸고 숫자도 부족한데 소득이 조금 넘어가면 그 또한 지원에서 빠지게 된다. 다가올 새 정부에선 광주처럼 교육·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대한 ▲전 학년 돌봄 확대 ▲거점형 학습센터 ▲공공프로그램 설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너진 민생 숨통·사회 갈등 봉합”

●박설희 조선대병원 간호사



코로나 시기보다 더 힘든 불경기 속에서 반년 이상 지속된 분열과 혼란으로 국민의 피로감은 날로 커져 왔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전환점에 당면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 회복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국민 통합이다. 당분간은 이념 문제를 뒤로 미루고,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최우선에 뒀다. 무너진 민생 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봉합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올해 출산한 부모로서 살기 좋은 나라, 변화된 세상을 보여주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엘리트·생활·학교체육 조화...선순환기대”

●이현창 광주 남구청 양궁팀 감독



한국 양궁의 ‘세계 최강’ 비결은 두터운 선수층을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수 선발이다. 세계 대회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초·중·고 연계육성을 통한 학교체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나아가 전국민 모두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아·청소년기부터 체계적인 스포츠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기초 종목 육성에 소홀했던 안된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대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이 조화를 이뤄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되길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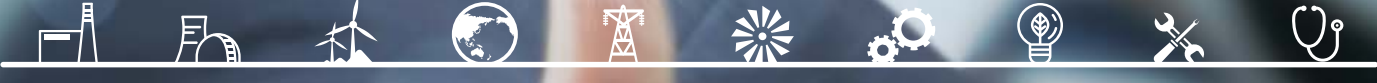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한전KPS**

Global No.1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전KPS**

www.kps.co.kr